

예측 가능한 패턴의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 간의 차이 분석*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Translated Picture Books in Korean in Predictable Pattern Books*

이명신(Myoung Shin Lee)¹⁾

김지연(Ji Yeon Kim)²⁾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explore the types of predictable pattern books are suitable for reading aloud, the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translated Korean picture books in terms of their characteristics of speakability and the meaning of sentences. This study investigated a total of 112 picture books. The predictable pattern types were analyzed specifically, compared with onomatopoeia, mimetic words, repetition, rhyme, the shift of sentence and style typ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predictable pattern books could be classified into eight types and the number of sentences in translated books increased owing to the difference of sentence structure. In terms of speakability, words in repetition,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represented higher frequency except rhyme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characteristics of the two languages. Furthermore, translations used strategies of the shift in sentence and style types for speakability.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predictable pattern books can serve as good materials to read aloud for young children not only in terms of English picture books but also translated books regardless of concerns regarding their speakability.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구두 발표 논문임.

¹⁾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²⁾ 연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Corresponding Author : Myoung Shin L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ms505@yonsei.ac.kr

Keywords : 예측 가능한 패턴(predictable pattern), 가화성(speakability), 영어그림책(English picture books), 한국어 번역그림책(translated picture books in Korean), 문장과 문체형태(sentence and style types).

I. 서론

소리 내어 읽어주기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이다(Fox, 2001). 그러나 처음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영유아들은 오랜 시간동안 이야기에 집중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쉽고 반복된 패턴의 글과 글의 의미를 도와주는 그림으로 구성된 예측 가능한 패턴 책이 이러한 영유아들의 짧은 집중력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Honig, 1997). 영유아들은 부모가 읽어 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밝은 색의 그림과 리듬, 운율, 반복되는 문장의 소리에 기뻐하며 반응한다. 하지만 아직 글을 읽지 못하고 듣기에 의존하는 영유아들은 성인이 읽어주는 단어의 리듬을 몸으로 느끼며 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운율과 반복의 요소는 언어를 습득하는 즐거움을 제공한다(Saccardi, 1996). 바로 예측 가능한 패턴 책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Kiefer, 2009).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공동으로 주의집중을 하며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활동 중 하나가 그림책 읽기 활동이다(Sulzby, 1991). 영유아들은 이후의 문해발달 과정과 학습적 성공과 관련되는 많은 지식과 기술을 그림책 읽기를 통해 습득하게 되며, 언어, 글자와 그 기능에 관한 지식, 음운론적 인식, 그리고 구어와 문어의 이해 등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Sulzby, 1989). 특히 영유아에게 반복되는 단어, 구와 문장, 운율 그리고 여러 패턴이 있는 책은 유아가 책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 책읽기

활동에 효과적이며(Honig, 1997) 호기심을 갖게 한다(Zipprich, Grace, & Grote-Garcia, 2013). 이러한 반복적인 언어 패턴이나 이야기 패턴, 그리고 숫자, 요일, 위계적(hierarchical) 패턴 등의 특징이 있는 책들을 학자에 따라 예측 가능한 책(predictable books)(Kiefer, 2009; Tompkins, 2013), 패턴 책(patterned books, pattern books)(Honig, 1997; Zipprich et al., 2013)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예측 가능한 패턴 책(predictable pattern books)”으로 용어를 정리하였다. 패턴이 있는 그림책은 반복된 언어와 이야기 문법 패턴을 이용하여 이야기의 내용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정보는 장기 기억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어 의미-구성의 과정에서 이야기 이해력을 발달시킨다(Zipprich et al., 2013). 즉, 소리내어 책 읽기 활동을 할 때 유아는 스키마(schema)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언어의 패턴에 관한 사전 지식(prior knowledge)을 기초로 하여(Goldman & Rakestraw, 2000) 이야기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이는 이야기 구조를 이해하는 틀을 형성하게 된다(Tompkins, 2007). 또한,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해 유아의 인쇄물 개념을 강화시키며, 유아들이 문자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성인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Kiefer, 2009).

예측 가능한 패턴 책의 유형은 단어, 구, 또는 문장이 반복되어 리듬감을 주는 패턴의 반복(repetition), 각운을 맞추는 단어를 사용하는 패턴의 운율(rhyme), 수, 요일이나 주, 그리고 친

속한 패턴으로 구성된 순차적 패턴(sequential patterns), 새로운 등장인물이나 여러 다양한 상황의 패턴이야기(pattern stories), 줄거리의 마지막이 이야기 시작으로 돌아가는 패턴의 순환적 이야기(circular stories), 각각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기존의 이야기에 점층적으로 첨가되는 첨가적 이야기(cumulative stories),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는 패턴의 질문과 대답(questions and answers)으로 분류할 수 있다(Tompkins, 2013; Zipprich et al., 2013). 이러한 유형들로 구성된 반복된 단어와 구, 문장, 패턴과 순차적 이야기는 유아들에게 이야기의 다음 문장이나 에피소드 등을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아동은 규칙적인 순서를 따르는 이야기를 듣는 경험을 할 때마다 이해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예측 가능한 책에는 단어,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그림이 포함되거나 단어, 문장, 패턴이 문장 속에서 반복되는 규칙이 있으며 이는 아동들의 요구에 따라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다시 읽는데 도움이 된다(Optiz, 1995). 또한, 그림책 저자들은 똑같은 단어나 구 또는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다음 이야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구성한다(Honig, 1997). 그 결과, 작가들에 의해 사용된 이야기 구조와 언어의 활용은 아동들의 쓰기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글쓰기에 즐거움을 주는 계기가 된다(Zipprich et al., 2013).

세계적으로 훌륭한 아동문학 작품을 발견하고, 이를 개발하고자 하는 열망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Joels, 1999). 이에 다른 나라의 수준 높은 아동문학 작품이 번역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된 이래로(Carus, 1980) 성인문학 작품 뿐 아니라 아동문학 작품 번역 역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그림책 번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영어권의 한국어 번역그림책은 우리나라 전체 그림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Lee & Kim, 2006). 또한, 아직 활발하지는 않지만 번역에 대한 연구 역시 시작되었다(G. Lee, 2009; H. Lee, 2009; Lee, 2007; Shin, 2005; Shin & An, 2012).

글이 번역된다는 것은 언어와 언어, 국가와 국가, 문화권과 문화권 사이의 경계를 넘어 옮겨진 것이므로 본래의 문화가 함께 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어와 영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달의 차이가 언어표현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Hills, 1991). 그러므로 한국어로 번역된 영어그림책에서 익숙하지 않은 등장인물의 이름과 유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질적인 배경, 문화 등이 포함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했다 하더라도 한국의 유아들은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영유아에게 내용 이해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번역시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가 바로 가화성(speakability)이다. 주로 희곡의 번역에서 음운적 요소를 위해 사용되었던(Snell-Hornby, 1988) 가화성(speakability)의 사전적 정의는 말하기에 알맞은(speakable) 상태를 의미한다(Wiktionary). 이를 국내에서는 가화성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통용되고 있다(Lee, 2009; Shin, 2005). 가화성의 특성을 잘 살려 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의성어, 의태어, 단어, 구, 문장의 반복 그리고 운율이다(Lee, 2009; Lee, 2007; Shin, 2005). 영유아들에게 소리 내어 읽어주기에 도움이 되는 의성어와 의태어는 주로 반복의 형태로 쓰여(Shin, 2005) 언어의 리듬감을 살려주고, 청각적 및 시각적인 연상이 가능해 영유아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준다(Kiefer, 2009; Lee, 2007). 또한, 가화성을 높이기 위한 단어, 구 문장의 반복 전략은 성인이 소리 내

어 읽어 줄 때 영유아들의 집중력을 높여 효과적으로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Zipprich et al., 2013). 마지막으로 운율을 갖춘 패턴 책은 반복적인 운율체계(prosody)로 영유아들에게 글자와 소리와 의 관계를 인지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어휘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Cecil, 2007). 이러한 요소들이 영유아들을 위한 그림책 번역 시 중요한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화성에 도움이 되는 여러 요소들과 특성을 갖추고 있는 예측 가능한 패턴 책에 대한 번역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영유아들이 반복된 리듬을 따라 어른과 함께 소리 내어 읽으며 단어유회를 즐길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인 예측 가능한 패턴 책의 한국어 번역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그림책 번역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문장형태 변환과 문체형태이다(Shin, 2005). Shin(2005)은 그림책 번역 시 가화성을 높이기 위해 문장형태를 번역하는 방법으로 평서문을 수사 의문문과 일반 의문문으로, 또는 평서문을 직접 인용문으로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영유아들은 질문과 대답 형태의 패턴을 친숙하게 느끼기 때문에 의문문을 다른 억양으로 읽어 주면, 글의 소리와 리듬에 다양성을 제시한다(Honig, 1997). 문체형태 또한, 다른 번역 전략인데 번역가가 서술체와 대화체 중 어느 형식을 따라 번역할 것인지를 문맥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Lee, 2009). ‘문어체’란 ‘문어’에서, ‘구어체’는 ‘구어’에서 볼 수 있는 발화양식이다(Jang, 2003). 영유아들의 경우 그림책 내용을 서술체 형식보다는 리듬감 있고 친숙한 대화체 형식으로 번역하여 흥미를 갖고 읽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그림책에

대한 번역 전략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유아들이 듣고 읽기 쉬어 접근이 용이한 예측 가능한 패턴의 영어그림책과 번역그림책에 대한 번역 전략 연구는 매우 미흡함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들이 읽기 쉬운 예측 가능한 패턴 책의 유형과 문장 수를 알아보고,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차이 분석을 통해 가화성의 차이와 문장과 문체형태의 변환을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패턴 책의 특징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예측 가능한 패턴의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유형과 문장 수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예측 가능한 패턴의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가화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예측 가능한 패턴의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문장내용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Walker(2012)의 준거 기준을 통해 제시한 예측 가능한 책(predictable books)의 목록과 위스콘신 오쉬코쉬 대학(University of Wisconsin Oshkosh)의 목록을 참고하여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 모두 동시에 분석 가능한 112권의 그림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도서 선정 과정은 78권의 영어그림책을 선정 후 국내에서 한국어 번역그림책으로 출판되어 분석이 가능한 각 56권, 총 112권의 예측 가능한 패턴 책을 최종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1) 예측 가능한 패턴 책의 유형

예측 가능한 패턴 책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Tompkins(2013)와 Zipprich 등(2013)의 분석 항목을 번역·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측 가능한 패턴 책의 유형은 크게 ‘반복’, ‘운율’, ‘순차적 패턴’, ‘패턴 이야기’, ‘순환적 이야기’, ‘첨가적 이야기’, ‘질문과 대답’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복’은 단어, 구, 또는 문장이 반복되어 리듬감을 주는 패턴이며, ‘운율’은 운율을 맞춘 단어와 후렴구가 반복되는 패턴이다. ‘순차적 패턴’은 수, 요일이나 주, 그리고 친숙한 패턴으로 구성된 패턴, ‘패턴 이야기’는 새로운 등장인물이나 여러 다양한 상황이 반복되는 패턴이다. ‘순환적 이야기’는 줄거리의 마지막이 이야기 시작으로 돌아가며 순환되는 패턴이고, ‘첨가적 이야기’는 각각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기존의 이야기에 점층적으로 첨가되는 패턴이다. ‘질문과 대답’은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는 형태이다.

2) 예측 가능한 패턴의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 차이 분석기준

예측 가능한 패턴 책의 가화성의 하위 항목인 ‘의성어·의태어’, ‘반복’, ‘운율’의 분석을 위해 Shin(2005)의 분석기준을, ‘문체형태’ 분석을 위해 Jang(2003)의 분석기준을, ‘문장형태’ 분석을 위해 Shin(2005)의 분석기준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사물이나 사람의 소리

와 모양, 움직임을 본떠 흉내 내는 단어로 음절이나 어절이 반복되는 형태이다. ‘반복’에서 ‘단어’는 자립성과 분리성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이고, ‘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이루어져 하나의 품사 기능을 하는 단위로 명사구, 전치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등이 포함된다. ‘문장’은 일반적으로 어, 구, 절과 함께 문법을 나타내는 언어 단위의 하나로 정의하였다. ‘운율’은 운문에서, 행을 이루는 단어의 배열과 글자의 발음에 의하여 일정한 리듬감을 자아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문체형태’는 ‘문어체’와 ‘구어체’로 나누어진다. ‘문어체’란 문어에서 볼 수 있는 발화양식으로, ‘-이로다, -진댄, -오’ 등과 같은 문말의 어미로 나타나거나 ‘그대, 그녀’와 같은 대명사, ‘매우’와 같은 부사, 아니면 주어와 서술어, 관형어와 부사어가 완벽하게 짜여진 문장 구조이다. 이에 반해 ‘구어체’는 ‘구어’에서 볼 수 있는 발화양식으로, 비정상적인 문장구조와 비속어의 사용, ‘한테, 랑, 더러’ 등의 조사, 반말의 ‘요’ 등이 주요한 특징이며, 구어체는 화자의 사고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므로 많은 정보들이 뒤에 덧붙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관형어와 부사가 서술어의 뒤에 나타나는 도치현상이 흔하게 나타난다. ‘문장형태’는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인용문 등을 포함하는 형태이다.

3. 연구절차

예측 가능한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Tompkins(2013)와 Zipprich 등(2013)의 패턴 유형 기준을 근거로 패턴의 하위 항목별로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 각각 2권에 대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연구자 간에 협의하여 최종 분석기준을 수정·보완하였다.

예비 조사 후 예측 가능한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 영어그림책 78권을 일차로 선정하였고, 한국어 번역그림책을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최종 분석대상 그림책으로 영어그림책과 번역되어 출판이 되어있는 그림책 각각 56권, 총 112권을 선정하고 그림책의 내용을 전사하였으며, 전사 내용은 분석항목에 따라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 내용을 비교하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도서는 아동학 연구자 2인과 아동 영어교육 관련 보조 연구자 2인이 함께 분석하였으며, 분석자간 일치도는 .93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PASW 18.0을 사용하였다. 분석대상 도서의 유형과 문장 수, 내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및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가화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분석

1. 예측 가능한 패턴의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유형과 문장 수

분석 대상인 예측 가능한 패턴 책에서 영어그림책의 유형과 분석대상 도서의 문장의 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한 예측 가능한 패턴 책 중 영어그림책은 총 1,703개($M = 30.40$), 한국어 번역그림책은 총 2,282개($M = 40.74$)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분석문장의 수가 가장 많은 그림책의 패턴 유형은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 모두 패턴 이야기와 순차적 이야기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영어그림책에서 패턴 이야기는 350개 문장($M = 43.75$), 순차적 패턴은 285개 문장($M = 35.63$)으로 이루어졌고, 한국어 번역그림책 또한, 패턴 이야기의 총 문장 수는 511개($M = 64.88$), 순차적 패턴은 모두 346개($M = 43.25$)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 모두 두 유형에서 가장 많은 문장 수를 나타내었다. 분석문장의 수가

〈Table 1〉 Analysis of the number of sentences according to the category of predictable pattern books ($N = 56$)

Category	English picture books		Translated picture books	
	<i>M</i>	Total	<i>M</i>	Total
Repetition	34.63	277	41.13	329
Rhyme	17.81	143	28.75	230
Sequential patterns	35.63	285	43.25	346
Pattern stories	43.75	350	64.88	511
Circular stories	28.13	225	37.75	302
Cumulative stories	27.00	216	35.44	284
Questions and answers	25.88	207	35.00	280
Total	30.40	1,703	40.74	2,282

적은 그림책의 패턴 유형은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 모두 운율로 나타났다.

패턴의 하위 유형별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문장 수를 비교해본 결과, 대체적으로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문장 수가 영어그림책의 문장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 그림책을 번역할 때 가화성을 높이기 위해 문장을 분리 하는 전략을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2. 예측 가능한 패턴의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가화성의 차이

예측 가능한 패턴 책의 전형적인 특성인 가화성을 의성어·의태어, 반복, 운율로 구분하여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 내용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분석유형의 영어그림책 총 빈도는 평균 36.21,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총 빈도는 평균 50.52였다. 그 중 영어그림책에서 의성어의 평균은 2.01,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평균은 6.70으로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3.40, p < .01$). 또한, 영어그림책

에서 의태어의 평균은 .52이고,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평균은 4.69로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t = -4.95, p < .001$), 반복의 하위항목인 영어그림책에서 단어의 평균은 6.07, 한국어 번역그림책 단어의 평균은 12.93으로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t = -3.57, p < .01$), 구와 문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원본그림책에서 문어 형태로 되어 있는 내용을 번역 시 가화성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문어 형태로 영어그림책에서 운율의 평균은 2.79,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평균은 .86으로 영어그림책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t = 2.70, p < .01$). 이는 한국어 번역 시 문장 구조가 다른 영어에서 리듬을 살리는 운율의 규칙과 동일하게 번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예측 가능한 패턴의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문장내용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문장내용을 문장형태와 문체형태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Table 2> Differences on speakability between English picture books and translated picture books (N = 56)

Category	English picture books	Translated picture books	t	
	M(SD)	M(SD)		
Onomatopoeia	2.01(5.06)	6.70(11.17)	-3.40**	
Mimetic word	.52(1.73)	4.69(6.40)	-4.95***	
Repetition	Word	6.07(8.67)	12.93(15.47)	-3.57**
	Phrase	5.86(7.70)	5.71(7.70)	.14
	Sentence	18.97(12.42)	19.64(15.50)	-.58
Rhyme	2.79(4.76)	.86(1.83)	2.70**	
Total frequency	36.21(21.04)	50.52(27.15)	-6.42***	

** $p < .01$. *** $p < .001$.

〈Table 3〉 Analysis on sentences and style types between English picture books and translated picture books (N = 56)

Category	Inconsistency in sentence types		Inconsistency in style types	
	Mean	Total	Mean	Total
Repetition(n = 8)	7.38	59	21.69	174
Rhyme(n = 8)	10.56	85	21.31	170
Sequential pattern(n = 8)	5.50	44	18.31	147
Pattern stories(n = 8)	2.88	23	28.69	230
Circular stories(n = 8)	6.94	56	13.38	107
Cumulative stories(n = 8)	4.63	37	24.50	196
Questions and answers(n = 8)	2.00	16	24.06	193
Total	5.70	319	21.71	1,216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문장형태에서 가장 많은 불일치를 보인 패턴의 유형은 운율로 총 85개($M = 10.56$)였으며, 가장 적은 불일치를 보인 패턴의 유형은 질문과 대답으로 총 16개($M = 2.00$)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불일치를 나타낸 운율 패턴의 영어그림책은 한국어로 변환하기 어려운 문장 형태의 변환으로 가화성을 살린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가장 적은 불일치를 나타낸 질문과 대답의 패턴은 원본그림책에서 이미 구어체로 구성되어 있어 문장 형태의 변환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체형태에서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 간에 가장 많은 불일치를 보인 패턴의 유형은 패턴이야기로 총 230개($M = 28.69$)였으며, 가장 적은 불일치를 보인 패턴의 유형은 순환적 패턴으로 총 107개($M = 13.3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패턴 이야기가 문어체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어 번역그림책에서 구어체로 변환하여 가화성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였고, 가장 적은 불일치를 보인 순환적 패턴은 순환되는 이야기 구조 특성상 원본에서 이미 구어체와 문어체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처음으로 그림책을 접하는 영유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패턴 책의 유형과 문장 수를 알아보고,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차이 분석을 통해 가화성과 문장형태와 문체형태의 차이를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패턴 책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측 가능한 패턴 책에서 영어그림책은 총 1,703개, 한국어 번역그림책은 총 2,282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어 번역그림책에서 문장의 수가 영어그림책에서의 문장 수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예측 가능한 패턴 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분석 문장의 수가 가장 많은 그림책의 패턴 유형은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 모두 패턴 이야기, 순차적 패턴 순이었으며, 분석 문장의 수가 가장 적은 그림책의 패턴 유형은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 모두 운율로 나타났다. 패턴의 하위 유형별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문장 수를 비교해본

결과, 대체적으로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문장 수가 영어그림책의 문장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그림책마다 문장 수가 증감하였다는 Kim과 Oh(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 이유는 주로 한글과 영어 문장 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영어그림책을 번역할 때 가독성과 가화성을 고려하여 문장을 분리함으로써 발생한 차이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던 『자장 자장 잠자는 집(So Sleepy Story)』(Shulevitz, 2006)의 원본에서 “sleepy cuckoo-clock /by sleepy dishes /on sleepy shelves /and a sleepy cat on a sleepy chair /and a sleepy sleepy boy in a sleepy sleepy bed.”는 번역본에서 “드르렁 벽시계 옆에 드르렁 드르렁 찬장. 그 안에 드르렁 접시들. 소르르 소파 위에 소르르 고양이. 새근 새근 침대에는 새근 새근 잠자는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원본에서는 한 문장이지만 번역본에서는 네 문장으로 분리되어 번역되었다. 즉, 영어의 접속절, 관계사, 복문, 중문, 구 등을 연결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 문장을 번역할 때, 복잡한 문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보다는 한 문장의 단위를 짧게 하여 문장 구조를 단순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문장의 길이와 문장의 복잡성이 가독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Kim, 2006)이며, 가화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장의 길이를 적절하게 하고 구조의 복잡성을 없애는 번역이 필요하다(Puurtinen, 1998)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긴 문장을 짧은 문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화성을 높인다고 하였던(Dollerup, 2003)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영어그림책을 번역할 때 상당수의 번역가들은 복잡하고 긴 문장을 짧은 문장으로 분리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예측 가능한 패턴 책의 전형적인 특성

인 가화성을 의성어·의태어, 반복, 운율로 구분하여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영어그림책의 총 빈도는 36.21,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총 빈도는 50.52였다. 그 중 의성어·의태어, 반복의 단어 수는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평균이 영어그림책 평균보다 높았으며 운율의 평균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논의하면, 『잘 자라 우리 아가(Time for Bed)』(Fox & Dyer, 1997)의 원본 내용은 “It’s time for bed, little foal, little foal, I’ll whisper a secret, but don’t tell a soul.”의 문장을 “잘 자라, 우리 망아지, 귀여운 아가야! 소곤소곤, 췌, 엄마 얘기 들으며 자거라!”로 번역하여 ‘소곤소곤’, ‘췌’ 등과 같은 의성어와 단어가 추가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자꾸 자꾸 시계가 많이지네(Clocks and More Clocks)』(Hutchins, 1994)의 “He ran down to the kitchen.”라는 문장의 원본 내용이 “아저씨는 부랴부랴 부엌으로 내려왔어요.”처럼 의태어를 첨가하고 단어를 반복해 번역하여 전체적인 리듬과 단어 반복의 빈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문학 번역 시 가화성을 고려하여 번역을 해야 한다는 Shin(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원본그림책에서 문어형태로 되어있는 내용을 한국어 번역그림책에서 가화성을 높이는 번역의 전략을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영어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한국어처럼 잘 발달되지 않은 관계로 번역자는 일반적으로 원문에 없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추가로 삽입했음(Lee, 2009)을 알 수 있다. 구와 문장의 반복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이유는 단어처럼 용이하게 리듬감을 살리는 번역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운율은 영어그림책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조그맣고

조그만 연못에서(*In the Small Small Pond*)』(Fleming, 1993)의 원본 내용 중 “wobble, jiggle, tadpoles wriggle”은 /-gl/소리가 반복되고 있어, 내용을 소리내어 읽었을 때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운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 그림책 내용은 “뽀질뽀질 꼬물꼬물 올챙이가 뽀틀뽀틀”으로 원본 그림책 내용의 의미를 중심으로 번역하고 있어 영어그림책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운율을 느끼기는 어렵다. 운율은 영어에서 이웃하거나 가까이 위치한 단어들 끝에, 동일 모음이 오거나 동일한 모음+자음이 올 때, 자음+모음+자음, 동일한 자음군, 또는 동일한 음절들+모음+자음이 올 때 소리를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Lee, Bae, & Kim, 1999). 예측 가능한 패턴의 영어그림책에서 2행 연구(couplet)나 4행 연구(quatrain)형식을 활용해 마지막 단어의 운율로 리듬감을 살려 아동들에게 듣고 읽는 즐거움을 주는(Honig, 1997) 반면, 한국어 번역 그림책에서는 원본의 내용과 일치하는 운율을 맞추어 변환하지는 못했으며 운율보다는 한국어에서 강한 리듬을 살리는 장치인 규칙적인 음절수를 반복하여 번역(Shin, 2005)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의 문장내용을 문장형태와 문체형태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문장형태에서 가장 많은 불일치를 보인 패턴의 유형은 운율이었으며, 가장 적은 불일치를 보인 패턴의 유형은 질문과 대답이었다. 자세히 논의해보면, 영어그림책의 『실리 샬리(*Silly Sally*)』(Wood, 1992)에서 “On the way she met a pig, a silly pig.”라는 문장을 한국어 번역 그림책에서는 “진흙 속 돼지를 만났어. 꿀꿀이!”라고 번역하여 평서문의 문장을 감탄문의 형태로 변환하였다. 이는 운율 패턴의 영어그림책들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어로 변환하

기 어려운 점이 있어 문장 형태의 변환 전략을 활용해 가화성을 살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유아들의 그림책 읽기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화성을 높이기 위해 문장의 형태를 평서문에서 의문문, 직접 인용문, 감탄문 등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와 일치한다(Shin, 2005). 반면, 『북극 곰아, 북극 곰아, 무슨 소리가 들리니?』(*Polar Bear, Polar Bear, What Do You Hear?*)』(Martin & Carle, 1995)의 내용 중 원본 그림책 내용은 “Polar Bear, Polar Bear, What do you hear? I hear a lion roaring in my ear.”이고, 번역본 내용은 “북극곰아, 북극곰아, 무슨 소리가 들리니?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이었다. 소개한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장 적은 문장 형태 불일치를 보인 패턴이 질문과 대답인 이유는 원본그림책에서 이미 구어체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 많아 문장 형태 변환이 필요치 않은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패턴 책에서 운율을 제외한 전체 유형별 문장 형태 불일치 횟수 평균이 10회 미만으로 극소수였음은 이미 원본에서 소리내어 읽기 좋은 특성을 갖추고 있어 번역 시 문장의 형태를 변환할 필요성이 적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문체형태에서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 간에 가장 많은 불일치를 보인 패턴의 유형은 패턴 이야기였으며, 가장 적은 불일치를 보인 패턴의 유형은 순환적 패턴으로 나타났다. 패턴 이야기의 『털장갑(*The Mitten*)』(Brett, 1989)에서 “Once there was a boy named Nicki who wanted his new mittens made from wool as white as snow.”라는 문장을 “옛날에 니키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니키는 눈처럼 새하얀 털장갑을 갖고 싶어했지요.”로 문어체를 구어체로 변

환하여 어른들이 영유아들에게 책 읽어 주는 즐거움을 주며 영유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 하듯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패턴 이야기에서 가장 많은 불일치의 경우가 나타난 이유는 패턴 이야기의 특징이 새로운 등장인물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줄거리가 있는 문어체 형태이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그림책에서 구어체로의 변환이 필요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순환적 패턴 유형에서는 『나랑 같이 놀자(Play with Me)』(Ets, 1976)의 내용 중 “Grasshopper,” I said, “will you play with me?” And I tried to catch him, but he leaped away.” “내가 말했죠. “메뚜기야, 나하고 놀래?” 내가 메뚜기를 붙잡으려고 하자, 메뚜기는 툭툭 튀어 달아나 버렸습니다.”와 같이 대부분의 문장을 원래의 문체 그대로 번역해 문체형태의 불일치 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야기 줄거리 마지막이 처음으로 순환되는 이야기 구조이기 때문에 원본에서 문어체와 구어체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라 추정할 수 있다. 요약하면, 예측 가능한 패턴 책은 영어와 한국어 번역그림책 모두 가화성과 내용면에서 빈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유아들을 위해 소리내어 읽어주기에 좋은 요소를 가진 매체이며, 가화성을 살리는 번역의 어려움을 희석시켜 주는 자료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는 리듬감이 살아있어 영유아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는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에 대한 연구에 시발점이 되었다는 데 있다. 반면, 여러 연구들이 번역그림책의 가화성, 문장과 문체 형태를 분석해 아동을 위한 소리내어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번역 전략을 제안했으나 이미 이런 언어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는 영어 그림

책과 한국어 번역 그림책에 대한 연구는 처음으로 글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영유아들에게 좋은 언어교육 매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예측 가능한 패턴 책 중 번역그림책에 대한 연구가 전무해 선행연구와의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예측 가능한 패턴 책 형태의 영어그림책과 한국어 번역그림책 활용방안과 효과, 영유아의 부모와 교사교육 프로그램, 문해 발달에 접근이 용이한 형태의 책이기 때문에 특히 언어발달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부모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도 가화성이 풍부한 한글의 특징을 살려 우리의 정서가 가득한 예측 가능한 패턴 책을 제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가 아름다운 우리글과 소리를 책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References

- Brett, J. (1989). *The mitten*. New York: Putnam Juvenile.
- Carus, M. (1980). Translation and internationalism in children's literature.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11(4), 171-179.
- Cecil, N. L. (2007). *Focus on fluency: A meaning-based approach*. Scottsdale, AR: Holcomb Hathaway.
- Dollerup, C. (2003). Translation for reading aloud. *Meta: Translators' Journal*, 48(1-2), 81-103.

- Ets, M. H. (1976). *Play with me*. New York: Puffin Books.
- Fleming, D. (1993). *In the small small pond*. New York: Henry Holt and Co.
- Fox, M., & Dyer, J. (1997). *Time for bed*. Orlando, FL: Harcourt Brace.
- Fox, M. (2001). *Reading magic*. Orlando, FL: Harcourt, Inc.
- Goldman, S. R., & Rakestraw, J. A. (2000). Structural aspects of constructing meaning from text. In M. L. Kamil, P. B. Mosenthal, P. D. Pearson, & R. Barr (Eds.),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Vol. 3, pp. 311-335). Mahwah, NJ: Lawrence Erlbaum.
- Hills, M. J. (1991). Border crossings: Translating theory. *EurAmerica*, 21(4), 27-32.
- Honig, K. T. (1997). *From cover to cover*. New York: Harpercollinspublisher.
- Hutchins, P. (1994). *Clocks and more clocks*. New York: Aladdin Books.
- Jang, G. (2003). A trial on reconstruction of written language/spoken language and their styles. *Korean Semantics*, 13, 143-165.
- Joels, R. W. (1999). Weaving world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ranslations in international children's literature.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30(1), 65-83.
- Kiefer, B. Z. (2009). *Charlotte Huck's children's literature*. New York: McGraw-Hill.
- Kim, H, J. (2006). A study on readability of English-Korean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With respect to length and structure of a sentence, explicitation, and interest and familiarit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san, Korea.
- Kim, K., & Oh, Y. (2010). Comparative study of picture books in original Korean and in English translation. *Korean Society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11(2), 1-24.
- Lee, G. (2009). Translation strategies of illustrated fairy tales based on the text's functions and children's cognitive competence. *Folktale and Translation*, 18, 177-215.
- Lee, H. (2009). The translation strategies of professional translators in translating children's picture books from English into Korea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san, Korea.
- Lee, I. (2007). Translation strategy for speakability of picture books based on skopos theor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san, Korea.
- Lee, J., Bae, Y., & Kim, Y. (1999). *Dictionary of linguistics*. Seoul: Bak Young Sa.
- Lee, Y. S., & Kim, M. S. (2006). Analysis of Korean translations of foreign picture books for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1), 125-137.
- Martin, Jr., & Carle, E. (1995). *Polar bear, polar bear, what do you hear?* New York: Henry Holt.
- Optiz, M. F. (1995). *Getting the most from predictable books: Strategies and activities for teaching with more than 75 children's books*. New York: Scholastic Book Services.
- Puurtinen, T. (1998). Syntax, readability and ideology in children's literature. *Meta: Translators' Journal*, 43(4), 524-533.
- Saccardi, M. C. (1996). More predictable books: Gateways to a lifetime of reading. *The Reading*

- Teacher*, 49(8), 668-670.
- Shin, J. (2005). The shift of sentence types in the translation of picture books. *Folktale and Translation*, 10, 75-91.
- Shin, J. (2005). The speakability norm in translating children's literature.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6(1), 65-98.
- Shin, S., & An, J. (2012).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s in the translations of paratexts in postmodern picture book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2(3), 73-100.
- Shulevitz, U. (2006). *So sleepy stor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Snell-Hornby, M. (1988).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revised edition*.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Sulzby, E. (1989). Assessment of writing and young children's language while writing. In L. M. Morrow, & J. Smith (Eds.), *The role of assessment and measurement in early literacy instruction* (pp. 83-109).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Sulzby, E. (1991). The development of the young child and the emergence of literacy. In J. Flood, D. Lapp, & J. R. Squires (Eds.),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the English language arts* (pp. 273-285). New York: MacMillan.
- Tompkins, G. E. (2007). *Literacy for the 21st century: Teaching reading and writing in prekindergarten through Grade 4*.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 Tompkins, G. E. (2013). *Literacy for the 21st century: A balanced approach*.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 Walker, B. J. (2012). *Diagnostic teaching of reading: Techniques for instruction and assessment*. Boston, MA: Pearson.
- Wood, A. (1992). *Silly sally*. New York: Harcourt.
- Zipprich, M. A., Grace, M., & Grote-Garcia, S. A. (2013). Building story schema: Using patterned books as a means of instruc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44(5), 294-299.
- Predictable books*. Accessed September 1, 2013. <http://www.uwosh.edu/library/emc/bibliographies/emc-bibliographies/predictable-books>.
- Speakability*. Accessed September 1, 2013. <http://en.wiktionary.org/wiki/speakability>.

Received December 31, 2013
 Revision Received February 22, 2014
 Accepted April 8, 2014